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등록현장 대행 서비스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문등록 현장 대행 서비스를 2년 연속 운영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에서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 협력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문등록 등을 해주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열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지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창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도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해야 했다.

고창군은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등록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편리했다”며 농가도 “바쁜 농번기에 외출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금

활용 노인 목록비 지원

부안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금으로 작은 목록당이 없는 읍·면·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목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대상지는 작은목록당이 없는 읍·면(부안읍, 주산·행안·변산·진서·백산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및 방문목욕 등 목록서비스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된다.

목록비는 연 5만원을 부안사랑상품권카드에 충전해 지원하며,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 금액부터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목록비 지원금은 협약업체(건강나라, 새만금 사우나, 관광호텔 사우나, 변산해수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시민과 함께 만든 3년의 변화

## 정읍시, 민선8기 3주년 시정 성과·운영 보고회

정읍시는 민선8기 3주년을 계기로 시정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24일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성과 및 운영계획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핵심성과를 점검하고 민선8기 후반기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형식적인 성과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서 간 협업과 책임행진,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형식적인 성과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서 간 협업과 책임행진,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

하고 읍면동은 행정 최일선으로 주민 중심의 사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소통·협업 밀도를 강화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부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동학유신파),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단 조성 집중 추진(미래산업과), 내장산·구절초정원 관광 객 10~20% 증대 목표 설정 및 대응 전략 마련(관광과) 등 민선8기 후반부 핵심과제를 부서별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실행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금 필요한 행정은 숫자가 아닌 신뢰를 쌓는 행정이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하나 하나가 곧 시정의 성과로 이어진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협업과 혁신을 통해 정읍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

### 정읍시, 6·25 기념행사 개최

정읍시제향군인회(회장 이상행)가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읍시는 25일 정읍체육관에서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시의회의장, 시의원, 박상훈 정읍경찰서장,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보존단체장,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추모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기념사,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보훈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행 회장은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활동 조명

### 정읍시 학술대회 성료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정읍시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민중 항쟁의 전국적 확산과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시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동학 관련 단체와 유족, 연구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 걸쳐 있던 참여자의 활동을 여섯 가지 주제발

표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참여자 등록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지역별 봉기의 특성, 참여자 명예회복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제1주제에서는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이 참여자 등록 과정의 법적·행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선과 등록 노력자에 대한 발굴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2주제에서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지역 참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정읍과 고부 지역의 활동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학술적 의미를 더했다.

제3주제에서는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달문위원이 전남 장흥과 강진

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봉기의 사례와 유족 증언을 소개하며, 전라도 서남부 농민군의 활동 특성을 조명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제4주제를 통해 충청도 내포 지역의 분산형 봉기를 분석, 민중운동의 조직력과 전개 양상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제5주제는 신진희 경국대학교 강사가 경상도 지역의 봉기 사례를 바탕으로 동학 세력이 약했던 지역에서도 민중의 자발적 저항이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설명했다.

마지막 제6주제에서 조재곤 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동학군의 북상 이후 경기, 강원, 황해 지역의 참여 양상과 2차 봉기 이후 전국 확산의 역사적 과급력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6·25전쟁 기념식 · 보훈가족 위안행사

고창군이 25일 고창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보훈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제3회 보훈가족 한바탕 위안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로·격려하고 군민과 함께 우와 존경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 김성수 의원, 김성면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장, 전북서부보훈지청 김효순 보상과장,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8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은 공음 어울림난타의 식

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모범 보훈유공자 표창, 6.25참전용사 격려품 전달 기념사 및 대회사,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부 위안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트로트, 발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점심 식사도 함께 제공되어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의 시간을 선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서울 중구, 친선결연 협약 체결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사회단체장,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위한 교류 활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시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생 협력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에 함께 힘을 모은다.

협약 체결 후에는 명동스퀘어 방문, 부안군청 기획전시 오픈식 참석,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투어 등 중구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하나되는 중구 한계하는 중구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기념행사

부안군과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회장 김형술)는 25일 부안관광호텔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주관으로 부안군, 박병대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보훈단체장 및 기관장,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기념사 및 격려사,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회영 부안군 부군수는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